



고창군이 지역의 다양한 역사문화자원을 아간 문화향유 프로그램으로 구성해 군민과 관광객들에게 보다 풍부한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고창 야행, 더 풍성해진다

〈夜行〉

역사문화지원 활용 사업 선정... 군, 새로운 볼거리 제공키로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지역의 다양한 역사문화자원을 아간 문화향유 프로그램으로 구성해 군민과 관광객들에게 보다 풍부한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군은 문화재청에 2017년도 역사문화지원 활용사업 일환으로 공모한 '문화재 야행(夜行) 사업'과 '생생문화재 사업'에 각각 선정됐다고 13일 전했다.

'2017 문화재 야행' 사업은 지방비 포함 총 4억원으로, 고창읍성과 오거리 단상을 중심으로 고창군민의 개성과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제안해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군은 '문화재 야행'을 통해 고

창읍성 축성과 민속놀이 등을 고창읍성의 야경과 어우러진 아름다운 밤 풍경 속에 선보이면서 새로운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해 지역경제와 관광산업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유네스코 고창생물권보전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은 자연생태환경과 역사문화가 어우러진 다채로운 관광을 아간에도 즐기며 문화향유와 체험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17 생생문화재'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고창읍성 갑·을이 바뀌는 날'은 지방비 포함 2400만원으로 고창읍성 축성 직후부터 행해진 전래놀

이인 '모양성 들뜬놀이'를 관람객과 함께 재현하여 고창읍성 역사공간의 가치를 높이는 사업이다.

박우정 고창군수는 "이번 야행 프로그램 등 공모사업 선정이 고창군의 특화된 문화재 관광콘텐츠 구축으로 개방·공유·소통을 추구하는 정부 3.0가치를 실현하고 장기적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양한 문화재 활용사업으로 고창의 역사와 정신을 널리 알리고 문화재를 활용한 관광산업의 새로운 모델을 발굴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군, 천일염 판로 확대 추진

새마을회-해리농협, 천일염 직거래 업무협약 체결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고창천일염의 판로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13일 고창군청 2층 상황실에서 전북 새마을회(회장 박명자)와 고창 해리농협(조합장 김갑선)은 고창 천일염 직거래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북새마을회는 김장배추 절임용으로 해리농협 천일염기공사업소의 명품 천일염을 사용하기로 했으며 이번 업무협약으로 올해 약 400여톤의 고창 천일염 판로가 확보되어 생산농가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됐다.

또한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대내외적으로 고창 천일염의 우수한 품질인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고창천일염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새마을회와 해리농협은 앞으로 유기적인 업무협조체제를 구축해 고창 천일염의 홍보와 판로확대를 중점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박우정 고창군수는 "고창의 비옥한

청정갯벌과 미세알이 풍부한 바닷물에서 생산된 고창 천일염은 소비자들로부터 큰 호응 속에 판매되고 있다"며 "이번 업무협약으로 신뢰받는 명품 고창 천일염이 생산자에게는 든든하게 힘을 실어주고, 소비자들에게 품질의 우수성이 더욱 널리 알려지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고창군에서는 천일염산업 육성사업으로 지난 5년간 약 30억원을 투자해 천일염 생산기저재 및 시설 환경 개선사업, 천일염산지종합처리장, 장기지장시설을 신축해 경쟁력 강화와 생산자 소득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고창천일염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에서 풍부한 일조량과 바람이 머무는 갯벌에서 생산되어 미세알이 3배 많고 나트륨 함량은 10%이상 적어 품질이 우수한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특별특리소

남원시, 입양사업 협약 체결

남원시(시장 이환주)는 올해 3월부터 행복홀씨 입양사업을 본격 추진하여 현재 44개 단체 1,354명이 참여하는 협약을 체결하였다.

행복홀씨 입양사업이란 내가 살고 있는 마을을 함께 가꾸며, 소원했던 이웃과의 관계까지 회복하는 일석이조의 사업이다.

지역단체, 기업, 봉사단체 등 다양한 단체들이 이 사업에 참여하면서 남원시를 깨끗하게 가꾸는 데 큰 원동력이 되고 있다.

시는 행복홀씨 입양단체에 청소관리용품 등을 제공하여 자율적인 환경 정화 활동, 청소, 꽃밭 가꾸기, 예초작업 등을 독려하고 있으며, 단체에서는 본격적인 가을 단풍철을 맞아 환경정화활동을 대대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환경과장은 자율적인 환경정화활동으로 행복홀씨가 민들레 흙처럼 우리 시 곳곳에 퍼지고 있다며 우리 마을 함께 가꾸기 행복홀씨 입양사업에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남원=유영철 기자

임실군청 김철배씨, 피흘린 80대 노인 구해

임실군 문화관 관치즈파에 근무하는 김철배(44)씨의 의로운 선행이 뒤늦게 알려져 화제를 모으고 있다.



지난 10일 오후 2시경 임실N치즈축제 전시장에서 사용한 물품을 반납하기 위해 삼계면 두원 마을로 가던 김씨는 동진 삼거리에서 사륜오토바이(ATV바이크) 운전 미숙으로 전복돼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김모(84)씨를 발견했다.

김씨는 먼저 119에 신고해 구조를

요청하고 피를 흘리며 신음하는 어르신의 상태를 침착하게 살핀 후 옷을 벗어 응급처치를 실시했다.

또한, 119 구급대 도착 전까지 어르신 곁을 지키며 동태를 살피고 혹시나 모를 상황에 대비했으며, 상황 정리 후 당당한 일을 했다며 연락처도 남기지 않고 홀연히 업무에 복귀했다.

잊혀질 뻔 했던 김씨의 선행은 사고를 당한 어르신의 아들이 면사무소를 통해 고맙다는 뜻을 전하며 세간에 알려졌다.

김씨는 "군민을 위한 공무원으로서 당연한 일을 했다"며 "어르신의 빠른 쾌유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 새로운 농촌관광 브랜드 네이밍 공모

남원시는 농촌관광 브랜드 개발로 농촌체험관광을 홍보하고 마케팅에 적극 활용하기 위해 남원 농산물 브랜드인 '춘향애인'과 함께 잘 어우러지는 새로운 농촌관광 브랜드 네이밍을 공모키로 했다.

공모주제는 ▲남원 지역의 이미지 살리기에 적합한 네이밍 ▲농촌관광으로 가지게 되는 기대감 함상에 적절한 네이밍 ▲남원 이야기를 기대하게 하는 네이밍이다.

공모기간은 10월 20일까지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1인당 1점까지 응모가 가능하다.

접수된 네이밍은 농촌관광 연계성·대중성·상징성·창의성 등을 고려하여 공모작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10월 중 3점을 선정 할 계획으로, 입상자 3명에게는 10만원 상당의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을 시상한다.

공모작은 농촌관광 브랜드 네이밍 최종 선정후보에 올라갈 예정이다.

공모에 참여하려면 남원시청 홈페이지(www.namwon.go.kr)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해 남원시 농촌관광 브랜드 네이밍 공모신청서 작성 후 우편 또는 직접방문, 이메일,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남원=유영철 기자

임실군, 추계도로 정비 추진

임실군은 도로 기능 유지 및 쾌적한 도로환경 제공을 위해 오는 20일까지 추계도로 정비를 추진한다.

군은 집중호우 등으로 파손 및 기능이 저하된 주요간선도로, 군도, 농어촌 도로 등 약 220km를 대상으로 도로 포장 파손, 침하, 포트홀, 절·성토 비탈면의 낙석 등을 점검한다.

특히, 주요 관광지 진입도로로 사용 가능성이 높은 군도 및 위양국도, 지방도를 점검해 물 고임, 가로수 시야 가림 등을 보수하고 교통안전표지, 시선 유도봉, 중앙분리대, 충격 흡수대 등 각종 교통시설물 점검도 병행한다.

군 관계자는 "쾌속도로 시설물과 안전시설물, 포장 노면 등을 적기에 보수하고 겨울철 강설에 대비할 것"이라며,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고창군, 구제역 유입 차단방역 실시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구제역과 A형 돼지열병 등 3점을 선정 할 계획으로, 입상자 3명에게는 10만원 상당의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을 시상한다.

공모작은 농촌관광 브랜드 네이밍 최종 선정후보에 올라갈 예정이다.

공모에 참여하려면 남원시청 홈페이지(www.namwon.go.kr)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해 남원시 농촌관광 브랜드 네이밍 공모신청서 작성 후 우편 또는 직접방문, 이메일,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남원=유영철 기자

올 한해 풍년농사에 감사를 표하며... '남원주당제' 거행

오늘 오후 3시부터

남원의 번영을 기원하고 한해 풍년농사에 감사를 드리는 제17회 남원주당산제가 남원문화원(원장 김찬기) 주최로 14일 오후 3시부터 남원식돈에서 거행된다.

김찬기 남원문화원장을 비롯하여 이환주 남원시장, 이석보 남원시의회의장, 박호성 국립민속국악원장, 김광호

남원유체국장, 조내수 농협중앙회 남원시지부장 등 각급 기관단체장 등 시민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남원주당산제는 대대로 전승되어 내려오는 남원의 대표적인 당산제이다.

당산제에 앞서 1부 행사로 매년 풍년 농사로 고소득을 올리며 선진농업을 앞장서온 농민을 뽑아 시상해오고 있는데 올해 정임상 수상자로 김재환

(82, 운봉읍 주촌리), 이용근(50, 송동면 송거리)씨를 선정하여 시상하게 된다.

이날 열리는 남원주당산제 제관에는 초헌관 이조승 남원부시장, 아헌관 이석보 남원시의회의장, 종헌관 김찬기 남원문화원장, 유식관 노국환, 축관 이준석, 동집사 한용수, 서집사 윤재기, 집례 양원석 이사를 선정했다.

／남원=유영철 기자

축 전주매일 창간 8주년

최상의 의료제공으로
신뢰받는 남원의료원이 되겠습니다.

진료과목		진료과목	
내과	오목기내과	가정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내분비내과	외과	흉부외과	영상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안과	진단검사의학과
산부인과	신경과	치과	병리과
소아청소년과	재활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응급의학과
비뇨기과	이비인후과		

www.namwonmed.or.kr

대표전화 063)620-1114

응급의료센터 620-1119 건강증진센터 620-1160 인공신장실 620-1110 장례식장 620-1140

•산모보건의료병동(산모·신생아전용)운영 문의 : 063-620-1234 •호스피스 완화의료병동 운영 문의 : 063-620-1233

임실군, 취학 전 자가시력검진사업

임실군은 관내 어린이집 만 3세부터 6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시력검진 및 약시 조기 발견과 치료를 위한 '취학 전 어린이 실명예방 자가시력검진사업'을 추진해 호응을 얻었다.

이번 사업은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어린이집 아동 250명의 가정에 자가시력검진표를 배부해 171명이 1차로 시력검사를 완료한 후 회수된 조사표를 바탕으로 2차 검진대상자 5명을 선별했다.

이어, 안과에서 정기적인 검진 및 치료 중인 아동을 제외한 최종 사시질환자 부모(오수원평어린이집)를 선정해 수술비를 지원했다.

그동안 생활이 어려워 수술을 미뤘던 박모양은 한국실명예방재단의 도움으로 희망하는 병원(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에서 지난 12일 성공적으로 수술 받았다.

한편, 이번 사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군 보건의료원 지역보건팀(☎940-3352)으로 문의하면 된다.

／임실=진홍영 기자